

## 육신의 생각인가? 영의 생각인가? (3)

이 정엽 목사  
(뉴비전교회 / 214-534-7141)

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,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첫째로,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다 영을 좇는(따르는) 자이다. 여기서 말하는 “영”은 성령님을 가리킨다.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.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다. 그래서 “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”(롬 8:9)고 말씀하신 것이다.

둘째로, 영을 좇고 따르는 우리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. 육신을 좇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. 먼저 확실히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새 영(a new spirit)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다. 이 영은 인간을 구성하는 몸(body)과 혼(soul)과 영(spirit) 중에서 영을 가리킨다.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영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영이 우리의 몸과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영을 주신 것이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고, 믿을 수 있고,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새 영(a new spirit)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것이다.

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:5-6에서 “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”라고 말씀하신 것이다. 성령님으로 난 것이 무엇인가? 우리의 영이다. 우리의 영(spirit)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다.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니다.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이 되었는가? 또 우리의 혼,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? 아니다. 그러나 영은 다르다. 예수님을 믿기 전의 우리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었다. 영적으로 죽은 죄의 본성을 지닌 영이다.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사랑할 수 없는 영이다.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른 새 영이다.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(a new creature)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.

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다. 에스겔 36:26에서 “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”라고 하였는데,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것이다.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다.

그러면 왜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한 것인가?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. 에스겔 36:26-27에 “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”라고 말씀하셨다. 우리의 마음(heart)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의 새 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. 그래서 새 영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“내 신(My Spirit),” 곧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.

그래서 로마서 8:5에서 “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”라는 말씀은 우리가 새 영을 받았고,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하는 일을 돕는, 보혜사(Helper)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. 그래서 “영을 좇는(따르는) 자”라고 말씀하신 것이다.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,

영의 생각과 영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.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.